

김말봉의 『밀림』 재론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자

초당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김말봉의 신문화운동
- 2 『밀림』의 아나키즘
 - 2.1 주인공 유동섭과 ‘청년에게 호소함’
 - 2.2 김말봉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 2.3 『밀림』 공동체와 상호부조론
- 3 『밀림』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 4 김말봉의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나오며

이 글은 김말봉 작가연구의 일환으로 첫 장편 『밀림』의 사상성을 규명해 본 것이다. 김말봉의 통속소설이 본격소설의 분열을 조화 융합한, 즉 성격과 환경의 불일치를 통일한 문학사적 성과라는 평가는 이미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기, 김말봉의 통속소설 평가에서 『밀림』을 읽고 논의한 평론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밀림』은 3년 동안 400여회 연재된 2백자 원고지 6천여 장의 대작인데다 두 차례, 중간에 한 달, 또 몇 개월 쉬기도 하여 그 긴 연재소설을 다 챙겨 읽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화는 통속소설은 상식에서 시작하여 상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상성을 떨 수 없다고 하였으나 김말봉의 『밀림』에는 사상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본고는 당시 지식인과 엘리트에 널리 읽힌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의 주장이 소설 『밀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을 원용하여 분석적 읽기를 해보았다. 『밀림』에는 ‘청년에게 호소함’과 함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의 영향으로 보이는 공동체 지향의 아나키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말봉은 첫 남편 이의형과 둘째남편 전상범, 셋째 남편 이종하와 함께 신문화운동을 함께 했는데 이들이 모두 아나키스트였던 점은 그의 문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말봉의 아나키즘은 사회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는 입장에 섰으며 아나키즘 역사상 특징으로 알려진 바쿠닌의 폭력이나, 일본이나 미국 아나키스트 저작에서 보이는 자유연애, 성적 방종 등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밀림』에 통속소설 일반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점, 기독교 정신을 소설화하여 비판적으로 문제삼은 점 등과 함께 주목된다.

김말봉은 어린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학교도 어을빈선교사가 세운 어을빈 소학교에서 시작하여 미선계로 계속 진학하여 일본 도시샤여자전문부 영문과까지 이어갔는데 거기에는 어을빈부인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지도가 있었던 듯하다.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을 도시샤대학 인물들과 자료를 찾아 제시했다. 그러나 김말봉은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불신자와 결혼하여 교회로부터 책벌을 당했으며 그럼에도 그의 첫 작품에서부터 기독교문제를 다루며 김말봉의 기독교정신 역시 아나키즘적 성격을 보인다. 『밀림』이 미완의

소설이나 그가 진보적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국문핵심어: 김말봉, 『밀림』, 김말봉의 아나키즘, 진보적 기독교정신, 크로포트킨, ‘청년에게 호소함’, 상호부조론 등

1 김말봉의 신문화운동

김윤식은 우리 ‘여성과 문학’ 연구의 첫 토대라 할 1973년의 글에서 “1935년 상업주의와 오락화의 저널리즘을 타고 등장한 김말봉¹은, (...) 우리 소설사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한 중요한 작가”²라고 했다. 통속소설이 문단적 비중을 갖게 된 것은 『밀림』(『동아일보』 1935), 『절레꽃』(『조선일보』 1937)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김말봉부터라고 하면서 임화가 「통속소설론」에서 김말봉이 독특한 방법으로 성격과 환경의 불일치³를 통일했다고 쓴 부분을 인용했다. 김윤식은 ‘성격과 환경의 불일치’는 본격소설의 내적분열을 말한 것이며 이 문제는 최재서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다고 했다.⁴ 임화나 김윤식은 본격소설의 내적분열을 조화 융합 통일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김말봉의 통속소설의 방법을 말한 것이다. 이 ‘환경’이라는 용어는 임화에 의해 자주 쓰였는데 임화는 「조선문학 연구의 일과제」에서 “환경이란 말을 우리는 토대(土臺)와 배경에서 분리하여 한나라의 문학을 위요하고 있는 여러 인접문학이란 의미로 쓰고자 한다.”⁵라고 해서 환경을 토대와 배경이라고 풀고 있다. 임화는 김말봉이 통속소설을 쓸 때 “청년다운 사회적 정신의

1 김말봉(金末鳳:호적명)은 1901년 4월 3일 경남 밀양에서 부 김해 김씨 윤중(允仲)과 모 배복수(裴福守) 사이의 5자매 (그동안 세 자매 등 숫자가 분명치 않았음. 김말봉 수필 「어머니의 추억—바느질 품에 눕고」에서 딸 다섯 두었다고 나옴) 중 막내로 출생.

2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244-245쪽.

3 임화, 「통속소설론」, 『문학의 논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책임편집: 신두원), 『임화문학예술전집』3, 소명출판, 2009, 306-323쪽.

4 이는 최재서가 「『천변풍경』과 『날개』에 대하여—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김윤식, 앞의 글, 245쪽의 각주 46 참조.

5 임화,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 『동아일보』, 1940.1.16. 방민호, 「임화와 학예사」,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유, 2013, 102쪽에서 재인용.

열도가 지리멸렬하여 시대나 정신적 요구를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배경이었음에도 김말봉씨는 그런 현상을 일체 보고도 안 본체하고 나섰으며 이것이 김말봉씨의 스마트한 맛이라고 하였다. 김윤식은 일본 평론가들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입화의 묘사 대신 서술의 방법을 중시하는 것”을 통속소설의 방법이라 하고 김말봉의 소설이 본격소설의 내적 분열을 조화 융합 통일시킬 유일한 대안이기에 김말봉의 한국소설사적 위치는 참신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밀림』이 『동아일보』에 연재하게 된 과정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변영로, 설의식 등 편집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지만⁶ 「망명녀」와 「고행」 두 편의 단편을 발표한 정도의 신인에게 장편연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것은 흔한 일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박화성도 단편 「추석전야」 한 편만 있는 신인일 때 장편 『백화』를 전작으로 써서 이광수에게 보여 『동아일보』 연재가 결정됐다. 그렇다면 김말봉도 작품 『밀림』을 써서 편집진에게 미리 보였을 수 있다. 『짚레꽃』의 경우는 거의 매일 소설을 써서 기차에 실어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반해 『밀림』의 경우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밀림』을 쓰기 위해 4년간 구상했다고 『밀림』 연재예고는 전하고 있고 김말봉의 수필 「매매가 아픈 밤」을 보면⁷ 매매를 맡아 길러주는 이는 언니 선봉이고 김말봉은 책상앞에서 글(일기)을 쓰고 있어 이는 본격적으로 책상에 달라붙어 글을 쓰는 작가의 모습이요, 방은 가난한 문필가의 작업실을 보는 듯 하다. 김말봉은 『밀림』 연재가 시작된 지 한달 여 되었을 때 “제가 『밀림』을 쓸 때 제판에는 힘을 다하여 썼습니다. 그러나 조선사람이라는 것, 또는 신문소설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의 작품의 코드 짊고 손도 잘라버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밀림』의 상처는 실로 참담합니다. 나도 예술가적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밀림』의 원고지를 죽죽 찢어버려야만 옳을 것입니다. (...) 잘리고 깎인대로 『밀림』에 부탁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앞에서 『밀림』이 목숨게 부르는 나의 서투른 곡조에 행여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밀림』은 용감스럽게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⁸ 신문소설의 상업주의와 일제의

6 여성 작가에게 주어진 역차별이라는 저항도 있었다.

7 김노초(金露草), 「매매가 아픈 밤」, 『중외일보』, 1930.3.29.

8 김말봉, 「(십만 애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편지) 조각사의 태도로 『밀림』(동아일보)의 작자로서」, 『삼천리』, 1935.11, 71쪽.

검열을 의식한 편집데스크의 자체검열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말하자면 그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원고가 미리 완성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밀림』은 전작으로 쓰였다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김말봉의 소설은 소설이 연재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소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⁹ 반면에 『밀림』에는 이러한 실시간 뉴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그려지지 않는다. 『밀림』은 『질레꽃』과 달리 김말봉이 통속소설로 쓴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

김말봉은 『밀림』 연재 예고 ‘작가의 말’에서 “이것을 단지 신문소설이란 흥미본위에만 그치지 말고 한거름 더 나가 좀 더 냉정히 생각하시고 비판하시어 작자의 붓을 잡은 의도가 어데 있는가를 오직 한 분이라도 짐작하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없는 만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 하고 “불행이 독자가운데서 한분의 공명자(共鳴者)가 없다 하더라도 행여 이글이 십년 혹은 이십년 후까지 남아있게 되어 그때 누가 읽어보고 그리고 작자를 향하여 충심으로 대답하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것으로 소설 『밀림』을 써내인 사명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작가는 이 소설 『밀림』에 ‘작가가 하고자 한 말’ 곧 문학정신이 있다고 쓰고 있는데 어조가 상당히 간절하다. 김말봉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중단된 연재가 다시 계속되는 1936년 11월 ‘장편작가회의’에서도 『밀림』에 대해 “도시 중심으로 써갑니다. 과거보다도 현대의 세상을 그려보고 따라서 장차 올 사회에 어떤 암시가 되도록 썼으면 하는 것이 나의 야심이옵시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朝鮮) 작가는 그 취재가 과거와 현대를 불문하고 그것이 지금보다 나쁜 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올켰다고”¹⁰(생각합니다)했다. 보통 신문소설 연재는 평균 6개월, 150~180여회이다. 『밀림』도 아마 그 정도 길이의 전작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글을 쓸 때 연재가 이미 1년이 넘었고, 240회가 넘었으니 신문소설 통념의 길이를 넘겨 대작으로 쓰였는지 모른다.

박종홍은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을 고찰하면서 “애정 문제뿐 아니라 이념

9 『질레꽃』에는 연재당시 있었던 손기정선수 마라톤 우승이야기가 등장하고, 『태양의 권속』에서는 아들영이의 죽음이 있었던 시기에 군인이었던 아들을 연상케하는 ‘낙동강아 잘있거라~’ 군가 부르는 장면이 삽입되어 나온다.

10 김말봉, 「장편작가회의」, 『삼천리』 제8권 11호, 1936.11.01, 68쪽.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림』을 1930년대 후반의 새로운 통속소설로 다루기 어려워 『밀림』연구가 부진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밀림』은 이념문제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등단작인 「망명녀」에 그대로 이어지며 김말봉소설의 본질적인 면모를 『짚레꽃』보다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박종홍은 『밀림』의 통속성을 고찰하면서 통속소설이론이 『밀림』에 적용하지 않는 점을 김말봉의 기독교 정신의 영향이 아닌가 보기도 하였다. 그는 김말봉의 『밀림』을 긍정적 통속소설이라고 명명하면서 이후 김말봉의 『밀림』을 아나키즘적 성격으로 다시 살펴보고 싶다 하였다. 필자는 박종홍과 같은 해에 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을 중심으로 그의 아나키즘 문학적 성격을 밝혀보았으나¹² 김말봉의 20년대 작품이라고 중요하게 평가한 노초(路草)의 글들이 정백(鄭柏)의 것임이 밝혀져¹³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밀림』 한편만을 대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작가연구에서 새로운 자료가 보태져 김말봉의 『밀림』을 여기 재론한다.

임화는 통속소설은 묘사가 서술 아래 종속되기에 분석하지 않은 과학처럼 항상 상식에서 출발하여 상식에서 끝나는 것이어서 고유한 사상성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말봉이 사상성을 구현하고 있는 『밀림』은 통속소설인가? 아닌가? 일제시기 임화의 통속소설론을 비롯하여 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의 통속소설을 논한 평론가들 중에 김말봉의 『밀림』을 모두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본다. 김말봉의 연재가 1938년 12월에야 끝이 나기도 했지만 400여회의 연재물을 모두 챙겨 읽은 평론가가 과연 있었겠는가. 그러니 읽기 쉬운 『짚레꽃』만 읽고 『밀림』까지 함께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고가 『밀림』 한 편만을 대상으로 그의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살피는 것은 『밀림』의 소설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1 박종홍,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고찰」, 『어문학』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342쪽.

12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0-230쪽. (작가연보 및 작품연보를 참조할 것)

13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화논총』 제71호, 한국문화학회, 2015.12. 노초(路草)가 露草 김말봉이 아니고 정백(鄭柏)임을 밝혔다.

김항명의 『찔레꽃 피는 언덕』¹⁴은 김말봉의 세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여성실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의 서문에서 등단작을 「고행」이라 쓰고 있다든가 첫 결혼의 상대자가 부산 사람으로 나오고 두 번째 결혼날짜가 맞지 않는 등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난 연구에서 이 자료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동안 신문 기사를 다시 확인하여 목포사람 이의현(李儀銜)을 이의형(李儀珩, 1896-1942)으로 이름을 바로잡은 다음 목포의 원적을 확인함으로써 직업(판사, 변호사) 등 인적 사항을 찾아 생애연구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¹⁵ 김말봉의 일본유학이 이 이의형씨가 권해서 이루어졌고 함께 유학간 것임을 나의 89년 인터뷰 노트에서 새로 발견하기도 했다.¹⁶ 그리하여 김항명의 『찔레꽃 피는 언덕』을 다시 읽은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만났다. 그중 하나가 김말봉이 ‘이석현’, ‘전상범’, ‘이중하’와 함께 “신문화운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첫 남자의 이름 이석현은 실명이 아니며 제주와 관련되었거나 목포에서 살았다는 말도 없으나 이의형으로 검색하면 제주 아나키스트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나온다. 이 사실은 신문화운동을 했다는 기록과 함께 김말봉의 사상적 기저가 아나키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전상범과 이중하가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이다. 전 논문에서 박노석 시인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도 전상범이 아나키스트였다는 증언을 단정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이중하가 아나키즘을 신봉했다는 사실은 언급했었다)¹⁷ 이번 확인한 이의형과 이들이 ‘함께’ 신문화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는 김말봉의 결혼이 이혼, 재혼, 그리고 또다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간격이 모두 1년여 정도로 상당히 가깝

14 김항명, 『여성실화 김말봉 찔레꽃 피는 언덕』, 명서원, 1976.

15 이의형씨의 인적사항 및 가족 사항은 차범석선생의 증언과도 부합했다. 서정자, 앞의 논문 참조.

16 시인 박노석과 1989년 1월 31일 부산 동래시장에서 만나 인터뷰한 노트를 다시 읽으며 발견한 사실. 일본유학이 이의형씨가 권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초기에는 보배언니가 도와주었으나 유학 학비는 이의형씨가 전담한 것, 졸업하자 결혼식을 부산 초량교회에서 갖고 목포로 가서 살았다.

17 서정자, 앞의 글, 각주 19. 김말봉은 해방 후 아나키스트 유림이 이끄는 독립노동당의 부녀부장으로, 낙산 이중하도 농민부장으로 피선이 되었다. 박노석, 「끝뫼아주머니와 나」,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9, 37쪽 참조.

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자료로도 읽을 수 있다.¹⁸ 이들이 동지적 관계였기에 김말봉과 쉽게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말봉 문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은 기독교 정신이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신앙을 지니게 된 자료는 유년기의 글이나 기독교재단 여학교 재학 시절의 글 및 그의 학적에서 밝혀지는 성경 과목의 높은 점수, 서울 성남교회 설립위원, 최초의 여성 장로 등 많다. 이번에 이에 이은 중요한 자료를 찾았다. 어을빈부인과의 관계이다. 김말봉의 소학교교사 어을빈부인(Bertha K. Irving)은 1894년 3월 의료선교사로 부산에 온 의사 어을빈박사(Dr. Charls H. Irving, 魚乙彬)의 부인으로 그 역시 미국북장로교 선교사였다. 어을빈박사는 의료선교가 불가능해지자 「만병수」라는 만병통치의 약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불티나듯 팔려나가 거부가 되었는데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고 부산 초량교회의 기록으로는 1911년 일본으로 떠났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떠난 것은 어을빈부인이고 남편인 어을빈박사는 선교사 직함을 내려놓고 부산에서 사업가로 살다가 한국에서 사망했다.¹⁹ 어을빈부부가 부산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부산이 호주의 선교구가 되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는 부산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문이다.

남편과 헤어져 일본으로 간 어을빈부인과 김말봉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일신여학교에 다니다가 서울 정신여학교로 전학을 한 것도 미국북장로교선교회 소속학교로 이동하여 일본유학에 지장이 없게 하려던 것일 수 있고, 도쿄의 송영고등여학교 편입도 어을빈부인의 안내였을 수 있다. 김말봉이 도시샤 여자전문부 영문과에 입학할 무렵 어을빈부인이 도시샤 여자전문부

18 김말봉 소설가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한국여성문학인회가 2001년 9월 24일 양재역 스포츠센터에서, 「문학의 집 서울」이 2004년 6월 18일에 연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전상범씨의 딸인 전해금씨가 나의 발표에 대해 원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이 부정적인 비판을 해서 당황했었다. 그분은 김말봉의 재혼(실은 삼혼)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김향명의 글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들이 동지였던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다.

19 KBS 부산 재발견 제작팀, 「그때 그 사람들」, 『TV로 보는 부산의 역사 부산재발견』, 도서출판 우진, 2012.12, 213쪽 참조.

에서 음악을 강의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²⁰ 김말봉은 1927년 도시샤 여자전문부를 졸업한 다음 1955년 미국에 갈 기회를 얻자 보스턴 앤도버뉴턴 신학교에 입학하여 약 1년간 수학하는데 이 앤도버뉴턴 신학교는 도시샤대학교를 설립한 니지마쥬(新島襄)가 수학한 학교이자 그보다 먼저 무교회주의를 창시한 우치무라간조(內村鑑三)가 다닌 학교이기도 했다. 김말봉은 미국에 체재할 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해 앤도버 뉴턴신학교 재학 중 귀국하나^{21 22} 김말봉이 지향한 신앙과 삶의 방향이 어을빈부인과 도시샤대학 설립자 니지마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듯 느껴져 주목된다. 도시샤대 총장을 지낸 유하사하치로(湯淺八郎)의 부친 유하사지로 장로도 중요인물인데 그는 공창폐지 운동을 했다.²³ 공창폐지운동의 시작은 당시에 이미 100여년이 넘는 기독교 운동으로, 유럽 등으로부터 기독교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김말봉의 공창폐지 운동문학은 젠더 시각 외에도 기독교운동 내지 기독교문학의 일환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김말봉의 학력에서 앤도버뉴턴 신학교 재학과 함께 새로 발굴한 자료가 1922년 태화여자관 영어수학이다.²⁴ 이 진급식에서 김말봉은 영어연설을 하고

20 김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도시샤 여자전문대에 어을빈부인의 교수 근무기록을 문의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비정규교수였는가 한다. 어을빈부인은 후일 일본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토의 선교에 써달라고 기부하여 교토교회를 세우게 했다. 김수진, 『김수진목사의 일본 개신교회사』, 홍성사, 1993, 217쪽.

21 김말봉, 「미국통신—내가 와서 있는 학교」, 『여성계』, 1955.12, 44-52쪽.

22 김재준, 「목사들의 거짓 기록이 메스꺼워요」,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280쪽.

23 김수진, 『일본의 아름다운 크리스천들』, 쿼란출판사, 2011, 201쪽; 和田洋一 編, 『同志社の思想家たち』 上巻, 同志社大學 生協出版部, 1965, 1-280쪽.

24 「난숙한 영어답사 태화여자진급회」 “2월 21일 인사동에 있는 태화여자관에서 제일회의 진급식이 있었는데 학부형들은 시간 전부터 조수 밀리듯 하여 시간을 맞추어 온 사람들은 발들여놓을 틈이 없이 대 만원 중에 정각이 되매 본관 회장의 사회로 순서에 따라 리양직씨의 기도가 있는 다음에 학생 내빈 일동의 우렁차고 자못 용감한 찬송가가 있었으며 학생 측으로부터 금년 진급에 특별히 우등의 성적을 얻은 김선덕(金善德)양의 풍금독주와 찬양대의 〈나사렛사람〉이라는 합창과 김말봉(金末峰)양의 영어연설이며 임숙빈씨의 풍금독주가 끝나매 김선덕양의 답사로 최용잔씨의 학사보고가 있은후 회장으로 부터 급장과 및 우등생에게 대하여 특별히 상장 수여가 있는 다음에 신엘버터씨의 기도도 폐회되었더라” 『매일신보』, 1922.2.27.

있다. 이 시기에 김말봉이 송영여고보 학적부에 친구로 기재한 임영신도 이화여전에서 영어 수학을 하고 있어서 두 사람 함께 미국행을 꿈꾸었을 듯도 하다. 임영신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1923년 9월 도쿄에서 일어난 대진재 때 김말봉은 귀국해 있었는데(어머니가 이때 별세·89년 1월 이정순 증언) 임영신은 일본으로 가서 조선인학살 사진첩을 가지고 미국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가 이승만박사를 만나 전한다.²⁵

인터넷에는 부산 초량교회 당회록²⁶에 실린 김말봉의 책벌(責罰) 결의(決議) 사진이 떠 있다. 당회장 주기철목사 주재로 열린 1926년 9월 5일 당회에서 불신자와 결혼했으므로 일 년간 책벌(責罰)을 결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벌은 다음 해 8월 6일 당회에서 해벌(解罰)이 결의 된다. 이 기록을 보면 김말봉이 1926년 8월에 결혼한 것이 된다.²⁷ 이때 결혼 상대자는 도시샤 여자전문부 재학 시 동거했던 이의형씨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낸 『산복도로 역사적 인물 재조명』에서 이때의 상대자를 전상범씨로 보았는데²⁸ 김항명의 『짚레꽃 피는 언덕』을 참조한 때문인 듯하다. 전상범씨와 재혼은 『별건곤』의 「풍문첩」에 실린 결혼 청첩의 1930년 11월 26일이고 결혼식장은 영주동 김말봉의 집이었다.²⁹ 1926년에 이의형씨와 첫 결혼이라면 1925년 신춘문에 가정소설 당선작 「시집

25 임영신,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민지사, 2008, 190쪽. 후일 김말봉과 엮히는 계기가 된 인물관계다.

26 『초량교회 당회록, 주후 1926년 시(始)』, 초량교회 소장. 이 교회 건축헌금 납부대장에는 김말봉의 아버지 김윤중의 기부기록이 남아있다.

27 김항명은 위의 책에서 1927년 늦은 봄 초량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는데 1926년의 잘못이다.

28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산복도로 역사적 인물 재조명』, 2013, 105쪽.

29 “『중외일보』 여기자로 었던(원문대로) 金末峯씨는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간다고 부산고향으로 도라가더니 유학은 커영 當地 전尙範군과 결혼을 하고 左語와 가튼 조선 추용의 최신식 청첩-안이 포고문을 그의 친지들에게 發하였다. 미구에 또 生女子 通고문이 잇기를 바라거니와 미국은 신혼여행으로 가시라는지 또한 궁금.

敬啓 生等이 去11월 26일 上午11시에 瀛州洞525번지 자택에서 결혼시글 거행하얏삽기 茲以仰告하옵나이다. 1930년 11월 29일 全尙範 金末峯”, 「1930년 11월 26일 부산시 영주동 525번지에서 전상범과 결혼」, 『별건곤』 제36호, 1931.1.1.

사리」를 김말봉이 썼으리라는 가정(假定) 또한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다.³⁰ 독실한 기독교신앙을 지닌 김말봉이 왜 불신자와 결혼했는지, 교회에서 책벌을 받게 까지 됐는지는 아나키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동시에 일본유학을 하던 시기 전후의 신문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첫 작품 「망명녀」에서부터 기독교 신앙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생애동안 쓴 소설에 이 기독교정신 주제가 수시로 등장하므로 김말봉 문학을 규명할 때 이 기독교정신을 또 하나의 사상으로 주목해야 한다. 김말봉의 기독교 신앙은 남편 전상범의 죽음과 이종하의 죽음 그리고 전상범과의 쌍둥이 딸 보옥과 아들 영이의 죽음 등의 충격적 체험과도 떼어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연구의 텍스트는 진선영 편, 『김말봉전집』1,2의 『밀림』 상,하³¹로 하였다. 이 전집은 『밀림』의 전편과 후편 전체가 실려있는 텍스트로 신문연재 원본을 바탕으로 한 유일한 완본 텍스트다. 김말봉 문학연구에서 주의할 것의 하나는 원본확인이다. 지금까지 『밀림』은 작가가 수정하여 낸 1952년 문연사판, 1955년 영창서관 본만 이본으로 있다고 알아왔는데 박종홍이 저본으로 한 1942년 영창서관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용문을 보면 이때 이미 수정이 이루어진 듯하며 이 모두가 전편뿐이다. 후편까지 실린 진선영본이 중요한 이유다. 『밀림』의 변경(變改)본이 하바드대학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김말봉의 사위 김마태씨의 자제본이 발견해 알게 되었다.³² 『짚레꽃』도 역시 변경본으로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고³³ 김경연의 논문에도 『화려한 지옥』이 다른 판본이 있다³⁴고 쓰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30 서정자,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연구」, 『여성과문학』 제1집, 한국여성문학연구회, 1989, 292-314쪽;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사, 2001, 432-461쪽. 작가 김말봉이 이 소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2,30년대 이후 그가 첫 결혼을 비밀에 붙여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31 진선영 엮음, 『김말봉전집1—밀림(상)』·『김말봉전집2—밀림(하)』, 소명출판, 2014.

32 후일 공개하겠다.

33 김경수, 「짚레꽃에 얽힌 이야기」,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흥성사, 1986, 154쪽.

34 김경연, 「빠라를 든 여자들의 내전」, 『한민족문화연구』 제68호, 한민족문화학회, 2019. 12., 197쪽.

2 『밀림』의 아나키즘

작가는 인간사회를 한 큰 밀림이라고 생각해 보았다고 했다. 이 용어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아나키즘은 이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상호부조의 논리를 찾아냈다. 크로포트킨이다. 싸움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돕는 공동체를 꿈꾼 아나키스트. 작가는 아나키스트의 인물을 형상화하여 앞에서 인용했듯이 “장차 올 사회에 어떤 암시가 되도록” “지금보다 나쁜 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긴 장정을 시작했다. 3년에 걸쳐 6천여 장의 소설이 연재되었고 그럼에도 『밀림』은 미완으로 중단되었다. 미완이지만 완결된 소설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밀림』이다.

김말봉과 신문화운동의 관련에 대해 1장에서 언급하였다. 김말봉은 무슨 문화 운동을 했을까. 김말봉의 수필 「나의 청춘기」를 보면 수백,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했다 하고³⁵ 잡지의 김말봉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김말봉을 “여류사회 운동투사로 과거에 성명(盛名)을 날리는(던) 이”라고 쓰기도 했다.³⁶ 목포청년회회의를 주도하고 목포여자청년회 대표로 뽑히기도³⁷ 한 것을 보면 청년회나 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투사’라는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혁명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노석시인은 89년 1월 인터뷰에서 김말봉은 아나키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시인과 김말봉은 나이 차가 14년이나 의기가 통하는 사이였다. 전상범은 삼화고 무 분사에 근무했고 박시인은 재료공장에 근무했는데 그도 아나키즘에 공감한 분으로 자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했다.³⁸ 그러나 김말봉이 일제시기 사회단체와 관련한 활동기록은 현재 청년회, 신간회, 근우회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³⁹

35 김말봉, 「나의 청춘기」, 『중앙일보』, 1954.8.1.

36 부인부의 김말봉 여사는 동경여자대학(동지사 여학교 전문부의 오기-인용자) 영문학부 출신으로 여류사회 운동투사로 과거에 성명(盛名)을 날리는 이. 「인재순례(제일편), 신문사측」, 『삼천리』 제4호, 1930.1.11. 32쪽.

37 「성황을 정(正)한 목포 여청 강연」, 『중외일보』, 1927.7.18., 청년회 대표는 김말봉이었고 이날 운집한 남녀가 350여 명이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1927년 12월3일 근우회 목포지회 집행부에 선출. 1928년 5월15일 근우회목포지회 대표회원. 이상 『중외일보』.

2.1 주인공 유동섭과 ‘청년에게 호소함’

김말봉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조금이나마 관련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인물을 찾는다면 사회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 잡지 『신생활』 지 기고자인 신일용(辛日鏞, 1894~1950)을 들 수 있다. 신일용은 임영신에게 구애했다가 아버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임영신의 글에 나오는데⁴⁰ 임영신을 학적부에 친구로 적은 김말봉과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 유동섭의 현실에 대한 인식, 즉 사회의 모순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당시 가장 널리 읽힌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⁴¹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⁴²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의사 법률가 문학가의 삶이 현 사회의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1880년에 쓰였지만 당시의 청년 지식인에게 상당히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그 첫 경우로 의사가 되었을 때 목격하게 될 현실을 쓴 대목은 『밀림』의 유동섭이 목격한 장면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흡사하다. 여러 아나키즘 서적을 참고하면서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을 살펴 김말봉의

38 박노석 시인은 인터뷰에서 “왜정 때 ‘청년에 고함(크로포트킨)’을 읽고 피가 끓어 민중에도움 될 것 생각해 고향으로 가 조선일보지국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말봉의 중매로 이종하의 누이동생과 혼인하여 김말봉의 시누 남편이자 이종하의 매제가 되었다.

39 「근우 목포지회 설립대회」, 『조선일보』, 1927.12.8. 집행부 김말봉. 「목포 신간지회 제1회 정총」, 부회장 이의형, 간사 김말봉, 『중외일보』, 1927.12.9.

40 임영신, 앞의 책, 175-177쪽. 『신생활』 지에 실린 신일용의 글은 사회주의 성격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직접 영향을 준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신생활』을 접할 수 있었을 가능성, 아나키스트 글을 만날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신생활』 제6호에 이성태가 소개한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 일부가 실려있다.

41 오장환, 『한국아나키즘 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45쪽;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04쪽;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3, 8쪽 등에서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이 소개된 잡지를 언급했다. 1920년대의 잡지는 『공제』, 『신생활』, 그리고 『동아일보』,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기관지 『탈환』(1928) 등이다. 박화성의 소설 『북국의 여명』(1935)에서도 리창우가 효순에게 이 ‘청년에게 호소함’ 책자를 전해주는 대목이 나온다.

42 크로포트킨, 성정심 역, 『청년에게 호소함』, 도서출판 신명, 1993.7, 8쪽.

아나키즘을 구명해보려 한다.

일본 구주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논문 학기를 보내고 있는 동섭은 여름, 별장이 있는 월미도에 왔다가 서정연사장이 세운 인천축항 회사의 매축 공사장에 들른다. 동섭은 이곳에서 노동 현장의 참상을 보게 된다. 돌산을 폭약으로 터뜨리는 위험속에서 조선말을 일본말처럼 일부러 서툴게 말하는 조선인패장의 혹독한 감독 아래 목도꾼들은 힘들게 돌을 나른다. 뜨거운 햇볕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다가 하면 산이 무너져 세사람이 죽어나가도 일은 계속된다. 노인이며 부녀자 아이들은 돌을 깨뜨려 자갈 만드는 일로 몇 폰의 임금을 번다. 여인의 등에 업힌 아이는 고개가 디롱디롱하고 네 살이 된 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댄다. 점심 고동이 불고 주인공 동섭이 임금을 묻자 가정형편을 하소하는 노인, 손가락을 전당국에 보내 나무 꼬챙이로 조밥을 찍어먹는 일남이, 클로버를 뜯어 나물로 싸온 도시락... 동섭이, 만길이 가져온 자신의 도시락을 아이를 업은 여인에게 주는 소설의 도입부 장제목은 ‘전장(戰場)’이다. 이런 비참을 극한 노동현장묘사가 7회나 계속 실렸다는 것이 『밀립』의 통속소설적 성격을 의심하게 한다. 동섭은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돌보아주며 차차 사회문제에 눈을 떠간다. 일제식민지하에서 극빈의 삶을 사는 노동자 그리고 빈민의 현실이다. 돌개는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수동할아버지의 부탁으로 동섭은 수동이를 따라 병든 수동이 아버지를 찾아간다.

동섭은 수동이를 따라 차츰 우릿간 앞으로 왔다. 이상한 일은 우릿간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조금 후에 동섭이가 돼지우릿간이라고 본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란 것을 발견하자 동섭의 맘은 아팠다. (...) 발갳게 녹이 슬은 함석 조각이 여기저기 덮여있고 그 위에는 주발만큼 씩한 돌맹이들이 엮혀어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함석조각의 한끝이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다. 그래도 문에는 유리조각이 붙었고 들창문인 듯 늘(널)조각에는 가느다란 철사가 매여있고 굴뚝에는 비루병 깨어진 것이 박혀있다. 함석, 유리, 비루병, 철사, 간즈메 통 모든 현대문명의 산물이다. 아아 문명 문화!

(...) “어떻게 아프십니까?” 하는 동섭의 말을 듣고 수동이 아버지는 부

스스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수염이 영성히 돌아있는 얼굴이 누렇게 삶은 무 같으나 골격만은 건강하여 보이는 것이다. (...) 경도(京都) 가서 이태나 있다가 돌아온 덕분에 배워온 예절인 듯 어찌 자꾸 절만 하는 것이다.⁴³

내일 누더기 옷을 입은 여자가 당신을 아픈 분에게 모셔가기 위해 올 것이다. 그가 당신을 통행자의 머리위로 반대편 이웃이 악수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난한 좁은 뒷골목으로 데려갈 것이다. 당신은 작은 등불이 깜박거리는 계단을 하나 둘 올라가고 그리고 차갑고 어두운 방에 더러운 이불을 덮고 보료위에 누워있는 아픈여자를 발견한다. 흙빛의 창백한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고 떨면서 큰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남편은 평생동안 하루 12시간 혹은 13시간 일해왔고 이제 그는 3개월동안 실직이 된 상태이다. 그의 직업에서 실직은 흔하다.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가 실직이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이 파출부일로 가게를 도왔다. 하루에 30수우를 받고 당신의 셔츠를 빼는 것 등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두 달간 아파 누워서 그 가족은 이제 참담한 곤경에 빠져있다.⁴⁴

위 두 빈민의 삶을 보면 너무나 닮아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의사인 당신은 그 아픈 여자를 위해 어떻게 처방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유동섭은 고민한다. 그리고 자경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월식(月蝕)을 보며 동섭은 우리가 남의 행복을 가리는 그림자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말한다. “자경!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별장에서 살려고 저 듯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구려. 내가 대학을 마칠 동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쫓겨나오는구려. 자경이 피아노를 둘씩이나 가지게 되는데문에 젓 먹이는 어머니가 주리고 장정이 약을 얻지 못하는구려.”

43 김말봉, 『밀림(상)』, 소명출판, 2014, 148-150쪽.

44 크로포트킨, 앞의 책, 8쪽.

크로포트킨은 “한 사람은 그녀의 생애 동안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가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난 이래로 노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척해진다...”라고 썼다.

고민 끝에 동섭은 이 빈민굴의 야학에서 가르치며 병을 치료해주는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는 중에 그 유명한 박사 논문 원고를 휴지통에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에 의하면 학문을 한다는 것, 그것이 천문학이든 심리학 화학 등 순수과학이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쾌락이자 이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를 위한 과학도 결국은 책 속에 사장(死藏)되어 있게 될 뿐이고, 몇몇 특권층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미 얻은 진실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공동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과학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초가 될 것이며 정의가 이것을 요구한다”⁴⁵ 했다.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지리학협회의 의뢰로 빙하퇴적물 연구를 위해 핀란드를 여행하는 중이던 1871년에 러시아 지리학협회에서 사무관직을 제안 받는다. 이때 크로포트킨은 지리학협회의 사무관이 된다면 러시아 지리에 대해 써보려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변에 진흙같은 빵 한조각 때문에 투쟁하는 때에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상한 정서의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소비하는 모든 것은 바로 땀 흘려 농사지어도 자식들에게 빵 한조각 배불리 먹일 수 없는 농민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아닌가?” 결국 크로포트킨은 기나긴 고민 끝에 러시아지리학협회 사무관직 제안을 사양하게 된다. 크로포트킨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리라 마음 먹는다.⁴⁶

동섭이는 자기를 만나고 싶어 모자를 흠친 일남이를 만나고 가슴속이 벅차 오르는 감격을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식물호르몬에 대한 일고찰」 박사논문 원고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린다. 나는 단연코 박사는 되지 않으리라, 박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나 아니라도 대답하고 나설 박사들이 많다. 그러나 가난과

45 김말봉이 대중소설가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론적 배경의 하나인 듯도 하다.

46 P.A.크로포트킨, 김유곤 역, 『크로포트킨 자서전』, 우물이 있는 집, 2003, 312-313쪽.

주림과 질병에서 울고 있는 저들의 동무는? 그렇다. 나는 나를 요구하는 저들을 위하여 살리라! 실망하는 약혼자 자경에게 동섭은 말한다.

“내가 자경의 고마운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조선사람은 박사보다도 단 한 개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내가 박사되려고 오년이나 십년동안 서재에 들어앉아있는 것보다 나는 감기약과 소화제와 고약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겠소. 사실 감기약을 얻지 못하여 장질부사나 폐병이 되고 소화제로 나올 것이 만성 위장병이 되고.”⁴⁷

대개 노동자들이 사는 XX동 사람들의 병은 각기(병), 외상, 부스럼이 많고 그중에는 음도 있고 설사, 이질, 장질부사 같은 것도 있었다. 동섭은 그런 병에 따른 약들을 미리 만들어 가방에 넣고 다녔다. 김선생이 감옥에서 복막염으로 가 출옥한 조창수에게 동섭을 데려간 것은 동섭의 이러한 구제 활동 때문이었다.

2.2 김말봉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필자가 논문에서 아나키스트 관점을 지닌 작가 김말봉이 사회주의운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⁴⁸ 김말봉의 『밀림』에서 그린 사회주의자 조창수와 동섭의 만남과 파탄, 그리고 자경과 정평산의 잘못된 만남은 지금까지 작가의 ‘사회주의 코스프레’ 정도로 읽혀왔다. 이는 『밀림』의 사상을 제대로 보아내지 못한 탓이다. 동시에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 및 마르크시스트 사이에 있어왔던 대립과 충돌 및 특히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⁴⁹

47 김말봉, 앞의 책, 156-160쪽.

48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연구」,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07-208쪽.

49 하승우, 「아나키스트들과 맑스주의자들의 충돌」,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16-17쪽 참조.

동섭은 김선생과 창수가 누워있는 집으로 간다. 진찰한 결과 맹장염이 오래 되어 복막염이 되었으므로 한시바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고보 4년 때 창수가 동섭을 불량학생들의 행패로부터 구해준적이 있었고 동섭은 당시에 창수를 도와주지 못했던 일을 상기한다. 창수는 월사금을 못 내 퇴학을 당했다. 동섭은 창수의 하숙으로 갔으나 그는 한 달 전에 옮겼다고 했다. 불량학생이 돈을 훔쳐 퇴학을 시키려 하자 ‘학교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의 갈 곳은 감옥 밖에 더 있어요.’ 하던 창수! 창수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표연히 만주 이민단에 참가하여 가버리고 이래 부모와 자식사이에 생 사간 소식을 모르고 지나는 터이다. 동섭은 창수를 수술하여 살리려고 약혼반지 살 돈을 일부 쓰게 된다.

지난여름부터 동섭을 사로잡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의혹과 변민은 동섭의 칸트 헤겔의 진선미 철학을 빼앗고 예술을 종교를 빼앗았다. 그러나 오직 하나 자경의 사랑만은 영구한 것, 마치 만년을 지나도 움직이지 아니한 태산처럼 자기 맘에 진좌(鎮坐)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어렴풋이나마 동섭이 걸어갈 길이 눈앞에 보인 오늘 자경이 암만해도 자기와 같은 방향을 걸어줄 것 같지는 않은 것을 발견한다. “양심이냐? 행복이냐?” 하고 반문해보던 동섭은 “사랑이냐?” “민중이냐”하고 물어보게 된 것이다.⁵⁰

창수는 내가 걸어갈 길을 칠 년 전부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동섭은 창수뿐만 아니라 그밖의 부모를 버리고 사랑을 버린 모든 선구자의 거룩한 얼굴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듯하다. 일요일, 자경과 외출하려다 창수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간 동섭은 창수의 부탁으로 다시 오백 원을 만들어야 했다. 창수가 수술로 건강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자 이삼일 내로 다시 감옥에 들어오라고 C주 임이 다녀갔다는 것이다. 창수는 동섭에게 자기의 탈출계획을 말하며 오백 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동섭은 서정연사장에게 실험용 약품이 필요하다고 이백 원을 청구해 받고 현미경과 졸업기념으로 자경에게서 받은 백금시계를 전당국에 잡히고 책을 뽑아 팔아 돈을 만들어 창수에게 준다. 그러나 탈출을 돕는다던 박영수의 배신으로 조창수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들어가고 동섭도 잡혀

50 김말봉, 앞의 책, 250쪽. 여기서 다른 곳에서 대중이라 썼는데 민중이라 썼으나 원문대로 두었다.

들어간다. 창수가 어디로 탈출했느냐 자백하라며 고문을 가해 온몸이 짓이겨지는 고문을 견딘 보람도 없이 박영수는 배신했고 창수는 전향한다. 막상 전향을 하고 보니 자기만 특별대우를 받자 창수는 괴로운 나머지 목을 매 동섭을 더욱 실망 시킨다. 이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절망이 동섭을 사로잡는다. “그놈이 그놈이 지도자? 개만도 못한 놈. 세력과 돈 앞에 머리를 숙인 놈 XXX아 이놈 네가 그렇게도 허무하드냐.” 이것은 XX단체 지도급에 있는 XXX이라는 청년이 돈 XX원을 받고 변절했다는 소문이 항간에 퍼졌을 때 창수가 한 말이었다. 그러나,

‘○○당도 그러하였고 XX군도 그러하였고 또 XX결사 그리고 ○○단체도 모두가 사전 발각이다. 왜 떳떳하게 일을 하여보고 잡혀도 좋을 것인데 …… 어떻게 그렇게 잘도 알았는가 하였더니 그 결사 속에 결사를 파는 놈이 있고 그 단원 속에 단원을 잡아주는 놈이 있는 바에야…….’

‘그래도 할 수 없어. 조선아 너는 내 보금자리라…… 파는 놈이 있기로니! 가는 놈이 있기로니 너만은 내 영원한 보금자리다.’⁵¹

동섭은 “다 가거라 갈 것은 가야 한다. 겨는 날아 가버려라. 죽정어도 가거라. 한 떨기 붉은 꽃을 위해서는 모든 잡초는 다 버리리라. 한 알의 금강석을 얻기까지 크나큰 석탄광은 헐리고 만다. 그렇다. 참 일꾼 하나가 생길 동안 모든 밀고자 모든 배반자의 검은 그림자가 어지럽게 뒤늘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올 때 못별이 숨는 것처럼 참된 일꾼들이 올 때 비로소 거짓쌌군들은 그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한탄한다. 작가에 의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거짓 쌌군이요, 민중을 위한 운동가가 아닌것이다. 배신한 자가 ‘지도급’이라고 한 말을 주목한다. 아나키즘은 지배계급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은 자경의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되풀이된다. 상만이 자경에게 자기의 아이를 가졌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며칠 일찍 출옥한 동섭이 들은 걸 안 자경은 죽을 작정으로 한강으로 향한다. 자경

51 위의 책, 461-462쪽.

의 핸드백을 훔치다가 들킨 놈아의 집에 간 자경은 어차피 죽으려던 터여서 핸드백을 털어 극빈의 놈아 집을 돕고 나온다. 이로 하여 정평산을 알게 되고 다시 들른 그 집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에게 친절하던 정평산이 자기를 한낱 돈 뜯을 부르주아 계집, 낚시에 걸린 고기, 적어도 일만 원은 쉽게 빼앗을 자신이 있다 등 멋대로 떠드는 것을 듣고 분노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정평산에게 침을 뱉고 “그래도 선구자냐? 그래도 주의를 말하고 진리를 표방하고?” 퍼붓는데 경찰의 등장으로 수라장이 되어 자경은 정평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주의자’들 모두가 동섭처럼 인격자인 줄로 오해한 한바탕 촌극이자 작가의 사회주의 비판이다.

출옥한 동섭은 자경의 배신과 탈선을 알고 절망 끝에 자살을 기도하는데 대야주임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절망 속에 들리는 소리,

“대중이 있다. 대중은 나를 기다린다.”⁵²

그는 입속으로 부르짖으며 칼을 동댕이친다. 동섭은 마치 지금까지 열려고 애를 쓰던 크나큰 문이 활짝 열린 때처럼 뚫으려고 힘을 모으고 기를 쓰던 석벽이 뚫어질 때처럼 그의 맘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여진 것을 느낀다. ‘한 계집아이의 사랑은 잃었다. 그러나 대중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맘속으로 부르짖고 서재로 와 석회로 만든 사람 해골의 상체를 안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 오오 죽음아 오직 너에게만 거짓이 없고 배반이 없구나.’ ‘그렇다, 나는 너의 진실한 손이 나를 잡을 때까지 …싸우마.’ 감옥에서 들고 나온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일남이를 찾아간 동섭은 그의 형 차돌이네 방을 하나 치우고 거기서 기거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비 치료원을 내고 치료를 시작한다.

보았다시피 동섭에게는 조직이 없다. 오직 이름 없는 대중이 있을 뿐이다. 『밀림』의 주인공 동섭 외에 안타고니스트 상만도 조직이 없다. 조창수와 오푸마 정평산 이들은 조직이 있고 조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 조직에는 ‘지도급’

52 위의 책, 529쪽.

이 있다. 조직의 유 무가 ана키즘과 사회주의를 분별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조직이나 단체의 지배층, 권력이 존재하는 것을 ана키즘은 거부한다. 프랑스의 ана키스트 세바스티앙 포르는 “모든 ана키스트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회조직에서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된 제도의 모든 규제를 증오한다는 것, 따라서 권위를 부정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ана키스트이다.”(『아나키스트 사전』, 1935)⁵³라고 했다.

크로포트킨은 ‘청년에게 호소함’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실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한가를 보여주고 왜 그것이 추한가를 설명해 주라(정확히 지적해주라) (….) 마지막으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만약 당신이 심장을 갖고 있다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동료들이 와서 당신들의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온다면, 당신이 주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당신 혼자서 힘을 얻기 위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 진리 정의의 그리고 사람 간의 평등을 위한 투쟁—삶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것을 당신은 찾을 수 있겠는가?”⁵⁴

2.3 『밀립』의 공동체와 상호부조론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상호부조가 동물의 세계와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 온 힘이라는 점을, 그 힘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동물학, 인류학, 역사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증명한 책이다.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상호부조는 단순히 사랑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연대의식을 뜻한다. 이 연대의식은 “상호부조를 실천하면서 각 개인이 빌린 힘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각자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각 인간마다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권

53 하승우, 앞의 책, 18쪽.

54 크로포트킨, 『청년에게 호소함』, 21-22쪽.

리도 존중해주는 의식, 즉 정의감이나 평등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⁵⁵ 상호부조의 예로 파리코문을 드는데 이 코문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⁵⁶ 작가는 『밀립』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장의 딸이자 동섭의 약혼자였던 자경과 결혼한 상만은 단번에 한성물산 주식회사의 총지배인이 된다. 일본 유학 시 애인이었던 하숙집 딸 요시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오는 바람에 더욱 돈이 필요해진 데다 오꾸마의 술책으로 무진광산 살 돈을 뽑아내기 위해 상만은 사장 자리에 오를 흥계를 꾸민다. 사원들에게 주를 나눠줌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자고 서사장에게 건의해놓고 상만은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전격적으로 사장에 피선되게 일을 꾸민다. 동섭은 매축공사장의 파업이 한 달을 넘겨 버티기 어렵게 되자 신문사 황진으로 하여금 상만이 사장에 취임하기까지 비리를 캐어 상만을 압박, 파업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게 만든다. 상만은 요시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으나 도리어 짜증만 듣고 나오며 자업자득이건만 외롭다 쓸쓸하다 눈물을 머금다가 유동섭을 길에서 만난다. 상만은 순간 그 지긋지긋하게 밟던 동섭이 적설을 녹이는 봄바람인 듯 따뜻한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돈도 지위도 그리고 가정도 가지지 못한 허름한 기성품인 양복을 입은 이 남자를 진심으로 옹호하고 따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자 문득 상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치고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낌을 받는 존재가 되어보았으면 하는 원념이 일순 질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휩쓴다.⁵⁷

상만은 “유형 단연코 오늘부터 (나도)유형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

55 하승우, 앞의 책, 52-53쪽.

56 최상급,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코뮤니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쪽. 크로포트킨은 민중이 지배자를 몰아내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회적 자본의 수용에 나설 때에, 모든 생산수단은 자유코문에 의해 공유되어 각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분배되고, 개인이 소유하던 사회적 수단은 만민에게 반환될 것임을 확신했다. 여기에서 코문은 1793년과 1871년의 파리코문의 혁명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 관념을 확대한다.

57 김말봉, 『밀립(하)』, 소명출판, 2014, 48쪽.

람(이 되겠습)입니다.”라면서 동맹파업단의 요구는 무조건으로 승인하겠다고 한다. 동섭은 “오군 오군은 오늘부터 단연코 우리의 동지외다.” 손을 잡는다. 이때 상만의 눈에서 굵다란 눈물이 두어방울 동섭의 손등에 굴러떨어진다. 이 순간 상만은 진심이었는지 모른다.⁵⁸

아버지 격인 서사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상만에게 그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다만 파업의 요구를 승인받는 것만으로 대화를 마치고 동섭은 돌아간다. 상만은 사장의 자리를 이용하여 오십만 원의 돈을 횡령, 무진광산을 매입하려다 발각되어 아내와는 이혼되고, 요시에는 달아나고, 딸 혜순은 죽고, 지인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그리하여 돈도 지위도 일시에 잃고 만다. 사건이 종료되어 오십만 원의 돈을 찾았을 때 서사장은 동섭이 네 살적에 그 아버지 유명춘이 하와이에 가서 벌어들여 모은 일만 이백 원을 서사장에게 맡김으로 이백만 원의 거부가 된 일을 말하며 동섭의 사업에 쓰라고 준다.

상만은 감옥에서 굶다랴게 오 년을 살고 나와 보니 동섭이 크게 사업을 확장하여 공장이 넷, 학교 유치원이 둘 공동목욕탕이 네 개, 이발소가… 그보다 두 집에 수도가 한 개씩 놓였다는 말을 듣자 불타는 질투에 사로잡힌다. 후편 『밀림』은 상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동섭의 공동체를 보여준다. 상만은 동섭이 동지로 받아준 호의를 까맣게 잊고 동섭과 서사장에 복수하는 일에 전심한다. 서사장은 가부(주식)에 빠져 투자하다가 차츰 규모가 커지고 손해보는 일이 잦아지자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고리채를 얻게까지 된다. 고리채로 돈을 대출해주는 장인택의 자산 관리인으로 들어간 상만은 담보로 제시한 서사장의 집이며 논 등 부동산 외에 동섭이 세운 공장 학교 병원까지 모두 담보로 내놓게 요구한다. 동경여의전을 마치고 미국 시카고 주립의학교로 가서 일 년 간 실습을 하고 나온 자경은 동섭과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결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모든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형이 갑자기 죽어 줄부가 된 장인택은 그의 건달 시절 때소부 유색이와 낳은 아들이 폐렴을 앓아 죽게 된 것을 동섭의 병원에서 살린 적이 있다. 그때 동섭의 인격에 감동한 바 있는 장인택은 애나를 사모해 결혼 상대로 쫓아다니다가 끝

58 위의 책, 50쪽.

내 실패하자 건달시절로 돌아가기로 한다. 서사장과 동섭이 경매날짜를 좀 연기 해달라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겠노라 사정하는 걸 보고 장인택이 상만에게서 서사장과 동섭의 재산경매와 차압을 ‘기한을 정할 것도 없이’ 연기해주라고, ‘명령’ 한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애나에게서 받은 교훈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사람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죄악”⁵⁹이라고 쓰고 있다. 장인택은 유색이 자기 집에 벌여놓은 술집에 가서 모여 앉은 술꾼 틈으로 끼어 앉으며 수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미완의 소설은 일단 끝이 난다.

동섭이 인천에 세운 공동체는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세운 학교 유치원 목욕탕 병원들이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공동체정신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상호부조론의 논리를 실천하고 있다. “정말입니다 선생님. 이달간 아주 썩 좀 절약을 해보았습니다. 훗날부터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하면 그만 아니어요. 저달에는 춘보가 했을 때는 말입니다. 허연 쌀밥에 고기니 생선이니 좀 잘 먹었세요? 먹긴 먹었어도 말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욕설이 있었세요. 이걸 뭐 하루먹고 치워버리는 것도 아니겠고 결국 우리 살림을 우리가 허비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선생님.”⁶⁰

이렇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⁶¹ 공동체의 운영은 작가의 아나키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 예이다. 동섭은 어느 날 찾아온 권형순을 만나 그가 발명한 ‘먼지 안 나는 자동차’의 설명을 듣는다. 동섭은 발명했으나 실습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발명가들을 위해 시제품을 만들어보게끔 기회를 주기도

59 위의 책, 608쪽.

60 위의 책, 540쪽.

61 하승우, 앞의 책, 107쪽. 크로포트킨은 노동에 대한 보상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필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크로포트킨이 구상한 코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원리로 움직였다. 크로포트킨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는 것이다.

3 『밀림』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 여러분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미신을 믿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목사나 신부의 호언장담을 들으려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⁶²

책의 첫 면에서 크로포트킨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폄하하고 청년들이 기독교를 이미 버렸으리라 믿는다고 전제한다.⁶³ 그래서였는지 박화성도 자전소설 『북국의 여명』에서 누가 요즘 교회에 나가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고, 김말봉도 단편 「망명녀」에서 독실한 기독교신자 윤숙언니가 몸값을 치르고 산호주를 구해냈으면서도 산호주 순애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에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고 미션계 학교에 다니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외워 칭찬 받던 김말봉, 미션계 도시사대학의 여자전문부를 졸업하기까지 어을빈부인과 함께 한 그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앞의 1장에서 언급한 도시사대 기독교신앙의 조상 니지마조는 앤도버뉴턴신학교⁶⁴를 졸업했고, 우찌무라 간조와 삿뿌로농학교의 클라크선생 역시 앤도버뉴턴신학교 출신이었다. 게다가 클라크선생은 앰허스트대 교수로 16년 근무했다. 이 신앙은 곧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앤도버뉴턴신학교는 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다)주에 도착한 청교도의 신앙에 닿아있다. 일본 개신교회사에 의하면 이 청교도적 신앙은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 전통이 깨지게 된다.⁶⁵ 독일 자유주의신학이란 무엇인가. 요네구라(米倉充)에 의

62 크로포트킨, 앞의 책, 7쪽.

63 자끄 엘릴, 이창현 역,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도서출판 대장간, 2011, 15쪽. “본래 무정부주의자들이란 모든 종류의 종교(기독교도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된다)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질서의 원천이자 기존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64 앰허스트대학은 종합대학교이고 신학교는 앤도버뉴턴이다. 앰허스트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 졸업한 다음 목사안수를 받는다.

하면 1883년에 상재된 르낭(J. E. Renan)의 「예수전」등으로 대표되는 신신학(新神學)이 일본에 도입되자 예수에 대한 인식은 신적 존재에서 ‘위대한’ ‘천재적 인간 예수’로의 이행을 보이게 된다. 독일의 튜빙겐 학파이래의 자유주의신학을 입은 신신학은 합리주의적 입장에 서서 성경을 근대적으로 해석하며 기독교신앙의 독자성을 평탄한 휴머니즘적 입장으로 환치하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파 유니테리안(Unitarian)이 태어났으며 예수의 신자성(神子性)에 있어서도 십자가 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속죄라는 본질적 교의(教義)는 그 모두가 부정된다.⁶⁶ 여기에서 일본의 학술 문화는 거의 독일의 영향을 받았고 관학(官學)은 독일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교계의 성장은 더욱 위축받게 된다.⁶⁷ 종교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사상에 공감한데다 종교계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김말봉의 ‘불신자와의 결혼’, ‘교회에서 받은 책벌’은 나왔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첫 단편 「망명녀」에서부터 선교사의 거짓 신앙을 비판하고 산호주의 눈과 입을 통해 기독교회 및 교인의 허례허식을 가감없이 폭로하며 윤숙 언니가 자신의 애인을 양보하면서까지 산호주 순애의 구원을 ‘주의자’활동에서 구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만하다. 『밀림』에서는 어떤가? 김말봉은 『밀림』전편(前篇)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인공의 등장에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또한 소극적이기는 하나 부 주인공이라 할 인애의 수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며 작가의 기독교 정신을 살피게 한다. 후편에서 작가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정애나를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아 보인다.

앞에서 잠깐 언급 했지만 동섭의 아버지 유생원(유영춘)은 하와이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나 병들어 죽게 된다, 유생원이 세상을 뜬다면 팔순 어머니와 네 살 난 아들 동섭만 남게 되어 유생원은 믿음 좋고 성실한 서정연집사를 불러 자신의 사후 가족부양을 부탁한다. 박장로와 선교사인 의사의 보증 아래, 칠십두락의 논문 학교에, 올 추수한 것으로는 교회에 종답을 세워달라 하고, 현금 1만2백

65 김수진, 『김수진의 일본 개신교회사』, 흥성사, 1995, 201쪽.

66 米倉充, 『近代文學とキリスト教』, 創元社, 1983, 32쪽. 김춘미, 『김동인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출판부, 1985, 33쪽에서 재인용.

67 김수진, 앞의 책, 201쪽.

73원은 서정연 집사에게 맡기며 동섭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유생원은 기도속에 ‘예수의 영접을 받고 천상의 음악소리를 듣는 듯’ 평안히 운명한다. 유씨가 별세한 석달후에 유영춘씨 어머니마저 떠나고 동섭은 서정연씨 집으로 와 아들처럼 길린다. 일만 수백원의 돈은 서씨의 수중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포복상은 종로 한복판의 백화점이 되고 인조건 공장 고무신공장도 내는데 서씨가 손을 대는 족족 그것은 성공이었다. 서사장은 황금과 지위의 맨 위에 서게 되었다.

동섭은 학과의 여가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식물을 채집하고 천문학을 배워 철학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는 칸트나 헤겔 철학을 대강이나마 읽어 진선미의 가치관 아래 동섭은 신의 존재를 쉽게 시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 인천엘 오고 또 축항 공사장의 노동자 빈민을 볼 때 그의 맘 속에는 의문의 선풍이 일기 시작한다. 그의 눈을 사랑으로 가리고 평화로 가린 세계의 밑바닥에 크나큰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지금까지 ‘네’로만 나가던 그의 대답은 돌연히 ‘아니아니아니’로 변하여버린 것이다. 동섭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실제에서 삶의 진면목을 본 듯하다.

본시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던 서정연사장과 가족은 부유하여지면서 교회 생활도 기도생활도 느슨해진다. 자경과 동섭이 월미도 별장에 있다가 서울 계동 집에 갔을 때 안방에는 웬 여승이 앉아있다. 여승은 자경의 관상을 보고 부적을 하나 만들어 베개나 옷깃에 넣어야 좋다고 한다. 동섭의 생일 아침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생일상을 받고 식사를 하는데 서사장은 기도합시다 하고나서 바로 식사를 시작한다. 자경이 항의하자 각자 했겠지 하며 넘어간다. 자경의 어머니는 여승이 준 부적을 침모를 시켜 자경의 저고리 깃에 넣는다. 이렇듯 독실한 믿음으로 시작된 서사장의 가정은 어느결에 세속적 가정으로 변모한다.

서사장의 경우에서도 보게되지만 “권력을 얻으면 어떤이유에서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엘릴은 말한다.⁶⁸ 서사장은 가부에 손대고 차츰 타락하여 파산에까지 이른다. 김말봉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된 데에는 고도쿠슈스이 오스키사카에 등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조선인 박열이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공감한 점도 적지않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조선을 식민

68 자끄 엘릴, 앞의 책, 32쪽.

지로 만들고 조선 백성을 유이민으로 떠돌게 만든 일본에 대한 항일 저항의식으로 상만과 서사장이 도쿄에 가는 기차에서 일본인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해프닝을 겪는 장면을 그렸지만 본질적으로 지배권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아나키스트적 사고에서 나타난 항일 저항의식의 발로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다.⁶⁹

작가는 학창시절 자신을 곤경에서 구해준 조창수가 주의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복막염 환자가 되어 나타나자 동섭이 돕다가 겪는 시련의 장을 ‘가시관’이라 적었다. 자경의 편지—어머님은 새벽마다 예배당엘 나가십니다. 평소에 사주도 보고 관상도 믿던 어머니가 정작 환란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밖에 구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도를 비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도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동섭의 가시관은 주의자 친구의 배신과 자경의 배신으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이었다.⁷⁰

부잣집 외동딸답게 유아독존에 매사를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자경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상만을 노리게 삼아 자주 만나다가 상만의 의도적 유혹에 걸려들어 절친한 친구 인애의 약혼자와 결혼하게 된다. 고아인 상만은 인애의 유치원 월급과 인애어머니의 바느질 품삤으로 일본 유학까지 마쳤으면서 자경과 결혼하여 인애를 배신했고 부자친구들의 행태에 절치부심하여 그 자신 황금벌레가 된 것이다. 상만을 잃은데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자 인애는 배신의 고통을 이기려 기도한다. “주여 이것이 십자가오니까.” 손가락 사이로 숨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없이 행주치마 위에 떨어진다. ‘주여 순이(히) 받게 하여주소서. 이것이 당신께서 받은 마지막 그 잔이라 하오면 …오늘 인연을 맺는 저 두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맘 주옵소서.’ 그러나 작가는 인애에게 결코 행운을 선물하지 않는다. 대신 동섭의 위로를 받는다.

동섭이 실비병원의 간호사로 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애는 인천의 유치원으로 직장을 옮기고 일남이의 집에서 숙식하며 동섭의 실비치료원에서 봉사한다. 동섭의 생일이 다가와 인애는 노방주 석자를 끓여다 올을 빼서 목 수건을 만들고 있는데 일남의 누나인 오꾸마가 와서 상만과 고야부장을 속여 받은 거액

69 김말봉, 『밀림(상)』, 291-305쪽.

70 김말봉, 『밀림(상)』, 478쪽.

의 돈과 반지, 팔찌를 맡기고 간다. 오꾸마는 한강철교에서 떨어져 사라지고(준비된 배를 타고 탈출했을 것이다) 총상을 당한 자경을 출혈로 위독한데 인애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피가 없어 죽게 된 자경에게 자기의 피를 수혈해준다. 그러나 원수인 자경을 용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봉사한 것이 결국 동섭을 좋아한 때문임을 깨닫고 자경을 돌보며 행복해하는 동섭을 떠나 명치정 수녀원으로 간다. 개신교인인 인애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수녀가 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선 가톨릭으로 개종부터 해야 한다. 인애는 버려지는 영아를 거두고 차츰 고아들을 모아 돌보는 광명원을 세우고 동섭은 그 후원자가 된다. 인애가 진 십자가는 그렇게 계속된다. 자기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가르침, 작가의 기독교 정신이 나타난 대목이다.

소설은 후편으로 이어져서 크게는 동섭이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 전개이면서 작게는 보육학교 졸업반 학생인 정애나의 결혼을 중심으로 불신자, 전과자가 소위 신앙인에게 얼마나 배척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기독교 신앙의 편협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펼쳐진다. 애나는 전차에서 차장에게 봉변을 당한다. 마침 같은 전차를 탄 상만이 애나의 억울함을 보고 차장을 대신 두들겨주다가 다른 전차의 차장들에 포위되어 정신을 잃을 만큼 매를 맞는다. 병원에서 눈을 뜬 상만의 앞에 애나가 있다. 매소부 유색도 병문안 와서 여학생 애나와 의식적 대결을 한다. 유색도 잘 생긴 상만에게 마음을 뺏긴 것이다. 게다가 아들 영남이 병이 나서 죽게 됐을 때 동섭의 병원으로 보내면서 백금 시계줄을 자기 목값으로 대신 맡겨준 은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오미전도사는 애나를 부자가 된 장인택과 맺어주려고 애를 쓴다. 애나의 어머니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돈이다. 혼자 몸으로 애나의 남매를 길러가면서 그가 배운 처세술은 황금 앞에는 머리 숙이지 않는 놈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다음에 돈……’⁷¹

상만은 애나라는 처녀를 통하여 생애 처음으로 한점 티가 없는 맑은 사랑의 샘이 열리고 만 것을 깨닫는다. 장인택 역시 애나를 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혼하려고 한다. 우선 상만의 취직을 장인택에게 부탁하여 성공한 애나. 두 전과자

71 김말봉, 『밀림(하)』, 336쪽.

는 각자 전력을 숨기고 애나와 인연을 맺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나는 전과자라면 감히 자기와 선을 보았다는 사실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상만이 불신자이므로 역시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전도사와 나눈다. 작가는 아름답고 깨끗한 애나의 신앙은 실은 이렇게 편협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믿는 신앙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만은 슬픔을 병처럼 앓아 볼 모양인지 이불을 둘러쓰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새벽 한시, “세상을 부러뜨릴 능력은 없다. 그러나 서정연씨 한 가족쯤이야...” 두시 십분, 외투 단추를 끼우고 목도리를 감고 계동을 향하여 간다. 아무것이라도 물어뜯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미친 개와 같다고 할까. 순사의 패검 소리에 놀라 숨던 상만,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려오다니! ‘한밤에 양을 치는 자 그양을 지킬 때 주 모신 천사 임하고 큰 영광 비치네. 큰 영광 비치네.’ ‘그 목자더러 하는 말 놀라지 말아라 이 기쁜 소식 인간에 전하러 왔노라 전하러 왔노라.’ 상만이 커다랗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쳐든 순간 찬물에 씻긴 흰구슬을 뿌려놓은 가없는 창공이 선뜻 눈에 들어온다. 이때처럼 이 밤처럼 하늘이 별이 상만에게 고맙게 느껴진 때는 진실로 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선생님, 기쁜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찬양대 속에서 애나가 인사를 한다. 크리스마스 찬양대였구나.

애나로 인해 깨끗한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이지만 소설은 제도적 기독교의 편협함을 날날이 지적하고 있다. 책벌, 불신자, 이런 단어들은 작가 김말봉 자신이 겪은 쓰린 체험의 반영일 것이다. 김말봉의 기독교 정신은 제도적 교회의 편협함에 매우 비판적인 진보적 입장이다.

4 김말봉의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나오며

위에서 인용한 바대로 김말봉은 『밀립』을 전작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검열로 무수히 깎였다고 한탄하면서 “내가 예술가적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밀립』의 원고지를 죽죽 찢어버려야만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깎인 부분은 신문소설이라는 한계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는 점과 작가가 ‘예술가적 양심’을 말하고 있는 점은 통속소설가 김말봉이라는 선입견과 잘 맞지 않는다. 김말봉이 이때는 아직 “나는

대중소설가다.”라고 선언하기 전이 아닌가? 통속소설가라 불리게 된 것은 임화의 통속소설론이 시발이 된 듯한데 앞에서 보았듯이 『밀림』을 읽지 않고 내린 결론임이 틀림없다. 임화는 통속소설이 상식에서 시작하여 상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상성을 떨 수 없어 이것이 통속소설과 본격소설을 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했지만 김말봉의 『밀림』에는 사상성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단 임화의 통속소설의 범위를 벗어난다. 박성봉에 의하면 “대중문화를 예술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대중예술의 통속성이다. 통속성이 내포하고 있는 상업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중예술의 통속성은 우리 인간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다.⁷² 통속성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통속성이란 진지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환경과 붙들고 씨름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진지성의 측면에만 조명을 던져온 감이 있다”고 해서 통속성에 의미를 부여했다.⁷³

김말봉은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호소함’이 역설한 “사회의 비용으로 무역 또는 어떤 학문을 공부한 것은 그가 획득한 학식을 약탈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의 지성,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오늘날 비참과 무지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날이 있을 것을 꿈꾸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악덕으로 침식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에 크게 공감한 듯 이 크로포트킨의 책자에 나오는 의사의 경우처럼 의학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유동섭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사회현실에 개안하는 과정과 고민과 결단, 그리고 빈민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기까지를 전 후편 38장(章)에 걸쳐 그려냈다. 주인공 동섭의 삶을 규율한 것은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으로 『상호부조론』, 『빵의 쟁취』 등을 참고하였다고 본다.

아나키즘의 용어에서 떠오르는 부정적 기호라면 테러요, 폭력이며 선정성이

72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11쪽.

73 위와 같음.

라고 할 것이다. 또한 통속성이라면 해학성, 관능성, 선정성, 환상성, 감상성을 드는데⁷⁴ 김말봉의 아나키즘 소설이자 통속소설이라는 『밀림』에는 테러나 폭력이 등장하지 않으며⁷⁵ 관능성이나 환상성도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아나키스트 이토노에의 『마을에 불을 지르고 백치가 되어라』⁷⁶와 미국의 아나키스트 『엠마골드만』의 평전 등에 나오는 성적 자유, 관능성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김말봉 아나키즘의 특색이자 차별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말봉은 첫남편 이의형과 둘째 남편 전상범, 셋째 남편 이종하와 함께 신문화운동을 함께 했는데 이들이 모두 아나키스트였던 점은 주목되었다. 김말봉의 아나키즘은 사회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는 입장에 섰으며 이로 볼 때 김말봉이 첫 번 결혼을 이혼으로 청산한 이유가 사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하승우는 「식민지시기의 아나키즘과 신간회」에서 ‘1927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 신간회를 결성하자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결심했다.’고 했다.⁷⁷ 김말봉은 남편 이의형과 신간회 목포지부에서 부회장(이의형)과 간사(김말봉)를 각각 맡는데 아나키스트들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회진화론에 따른 계급의 불평등을 인정한 채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성장을 가로막던 민족주의자들과 타협할 수 없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와 맞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의형과 김말봉의 사상적인 불화가 이혼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보게 된다. 이의형의 행로를 보면 친일 경력이 나오는 등 사상 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확고한 아나키즘 사상을

74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23-324쪽. 박종홍,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과 찰」, 『어문학』 제76집, 한국어문학회, 2002.6, 344쪽에서 재인용.

75 자끄엘릴도 자신이 지칭하고자 하는 무정부주의는 폭력을 절대거부한다고 했다. 한편 구약성서의 전쟁들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폭력이 아니고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나 왕좌(왕권)와 제단(교회)의 동맹이 있는 지난 십수세기간 이 텍스트들은 덮이어 왔으며 게다가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기보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더 잘 처신해왔다고 했다. 앞의 책, 30-31쪽.

76 구리하라 야스시, 번역공동체 <잇다> 역, 『마을을 불지르고 백치가 되어라—백년전 여성 아나키스트의 삶과 죽음』, (이토노에평전), 논형, 2019, 8-115쪽; 오스기 사카에, 김웅교·윤영수 역, 『오스기 사카에 자서전』, (주)실천문학, 2005, 312쪽; 캔테이스 포크, 이해선 역, 『엠마골드만—사랑, 자유, 그리고 불멸의 아나키스트』, 한얼미디어, 2008, 153-177쪽.

77 하승우, 앞의 책, 189쪽.

지니고 대작 『밀림』을 썼으며 일제말 일어로 글쓰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가난과 싸우며 티름 부사를 운영하기도 하고⁷⁸ 우동가게를 운영하기도⁷⁹ 했던 투사 김말봉의 모습이 새삼 우뚝해보인다.

김말봉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으며⁸⁰ 학교도 어을빈선교사가 세운 어을빈 소학교에서 시작하여 미션계 학교로 계속 진학하여 일본 도시샤 여자전문부 영문과 유학까지 이어갔는데 거기에는 어을빈부인과의 연락과 지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자료를 새로 찾을 수 있어 놀라웠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김말봉이 불신자와 결혼하여 책벌을 받은 사실을 놓고 자끄엘텔의 『무정부주의와 기독교』를 읽으면 김말봉의 기독교정신이 아나키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엘텔은 이 책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무정부주의를 말하고 있다.⁸¹ 통속소설로 알려진 김말봉의 소설에서 기독교정신이 이와같은 진보적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뜻밖이라 할 것이다. 김말봉의 기독교정신의 분석적 연구는 다음 소설연구에서 계속할 생각이다. 김말봉은 1955년 도시샤대학을 설립한 니지마쵸가 입학, 졸업한 앤도버뉴턴신학교에서 1년 수학하여 기독교 정신을 더욱 갈고 닦았다. 최초의 여성장로가 된데에는 교회설립위원과 교회건축 등 교회활동의 공적과 함께 앤도버뉴턴신학교의 1년수학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말봉의 기독교정신은 소설 속에서 기독교회의 제도적 편협함을 비판적으로 그리게 했으며 하느님과 돈을 모두 사랑하는 세속화된 신앙을 비판, 지적하여 그가 진보적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김말봉의 『밀림』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을 김말봉의 전 작품 읽기에 적용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규명해 나갈 생각이다.

78 박노석 시인의 89년 증언.

79 김항명, 『찌레꽃 피는 언덕』 앞의 책에 나옴.

80 이때 신채호가 내는 잡지에서 김유신의 말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다. 너댓살 시절의 기억에 신채호가 있을 리 없고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신채호의 이름을 기억하게 했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신채호가 낸 잡지에서 김유신 이야기는 찾아지지 않았다.

81 자끄 엘텔, 앞의 책, 24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진선영 엮음, 『김말봉전집1—밀림(상)』, 소명출판 2014, 3-833쪽.
_____, 『김말봉전집2—밀림(하)』, 소명출판 2014, 9-679쪽.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별건곤』, 『삼천리』, 『신생활』, 『아성』, 『여성계』
『초량교회 당회록, 주후 1926년 시(始)』, 초량교회, 17쪽, 38쪽.

단행본

김수진, 『김수진목사의 일본 개신교회사』, 홍성사, 1993, 217쪽.
_____, 『일본의 아름다운 크리스천들』, 쿼란출판사, 2011, 201쪽.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244-245쪽.
김항명, 『짚레꽃 피는 언덕』, 명서원 1976, 15쪽.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23-324쪽.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11쪽.
박화성, 서정자편, 『북국의 여명』, 푸른사상, 2003, 254쪽.
방민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3, 102쪽.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산복도로 역사적 인물 재조명』, 2013, 105쪽.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사, 2001, 441-443쪽.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45쪽.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04쪽.
_____,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38쪽.
임 화, 『문학의 논리』,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편, 책임편집 신두원, 『임
화문학예술전집』3, 소명출판, 2009, 306-323쪽.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9, 37쪽.
KBS 부산재발견 제작팀 지음, 그때 그 사람들, 『TV로 보는 부산의 역사 부산재

- 발견』, 도서출판 우진, 2012.12, 213쪽.
-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192쪽.
- 구리하라 야스시, 번역공동체 〈잇다〉 역, 『마을을 불지르고 백치가 되어라—백년 전 여성아나키스트의 삶과 죽음』, 논형, 2019, 8-115쪽.
- 오스기 사카에, 김응교·윤영수 역, 『오스기 사카에자서전』, 실천문학사, 2005, 312쪽.
- 자끄 엘릴, 이창헌 역,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도서출판 대장간, 2011, 15쪽.
- 캔데이스 포크, 이해선 역, 『엠마골드만—사랑, 자유, 그리고 불멸의 아나키스트』, 한얼미디어, 2008, 153-177쪽.
- 크로포트킨, 성정심 역, 『청년에게 호소함』, 도서출판 신명, 1993, 7,8쪽.
- P.A.크로포트킨, 김유곤 역, 『크로포트킨 자서전』, 우물이 있는 집, 2003, 312-313쪽.

논문

- 김경연, 「빠라를 든 여자들의 내전」, 『한민족문화연구』 제68호,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9.12, 165-224쪽.
- _____,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화논총』 제71호, 한국문화학회, 2015.12, 343-405쪽.
- 박종홍, 「김말봉 『밀립』의 통속성고찰」, 『어문학』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6, 341-361쪽.
- _____, 「『밀립』의 담론고찰」, 『현대소설연구』 제1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6, 224-240쪽.
- 서정자,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연구」, 『여성과문학』 제1호, 한국여성문학연구회, 1989, 292-314쪽.
- _____,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김말봉의 『밀립』과 『짚레꽃』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90-230쪽.
- 유병관,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갖는 의미와 영향」, 『국제어문』 제71호, 국제어문학회, 2016.12, 209-233쪽.

최상급,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코뮤니즘에 관한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38쪽.

Abstract

A Reconsideration on the Ideology of Kim Mal-Bong's Popular Novel *Millim (Jungle)*
—Focusing on Anarchism and Christianity

Seo, Jung-ja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deology of Kim Mal-Bong's first novel, *Millim (Jungle)* in continuing studies on Kim and her works.

Kim Mal-Bong's novels are highly regarded for creating harmony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which the precedented ones could not achieve. There was, however, no serious critique of her *Millim (Jung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ong span of running, over 400 times in three years, and the quantity, more than 6,000 pages, may have caused the less attention. Two interruptions also made the reading the entire novel more difficult. Im Hwa(임화) said that popular novels are poor at expressing ideology. In *Millim (Jungle)*, however, ideological features are very noticeable.

I found the influence of Kropotkin's 'An Appeal to the Young' on her novel, so I checked it closely. Also, referring to Kropotkin's *Mutual Aid*, I revealed the community-oriented nature of *Millim (Jungle)*.

With her first husband Lee Eui-Hyung (이의형), the second Jeon Sang-Beom (전상범), and the third Lee Jong-Ha (이중하), Kim Mal-Bong participated into the cultural movement(신문화운동) together. They were all anarchists. I think this should be noted in study of her literature. As an anarchist, Kim strongly criticized socialism. The typical aspects, the violence of Bakunin, free dating in Japanese or American anarchist works, and sexual indulgence, are rarely appeared in her novel. This is the main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opular novels are not revealed in the *Millim (Jungle)* and criticism of the Christian spirit.

Since childhood, Kim grew up in a family with deep Christian faith. She attended Irvin Elementary School, founded by Dr. Irvin, and after going to some mission schools, sh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t Doshisha(同志社) University Women's College (女子專門部) in Japan. I found some new evidence that influenced her Christian faith.

However, under the influence of anarchism, Kim married non-Christian and was punished by the church. Nevertheless, she dealt with the Christian issue from her first

work, and her Christian spirit also has an anarchistic character. *Millim (Jungle)* is an un-finished novel. But the novel showed that she had a progressive attitude of faith.

keywords: Kim Mal-Bong, Millim, Kim Mal-Bong's Anarchism, Progressive christian spirit, Kropotkin, An Appeal to the Young, Mutual Aid

본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